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성료

드림애드커뮤니케이션스, 서울인쇄대상 대상 수상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를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15일 오후 2시 개막식과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인쇄문화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김미희씨의 사회로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권영진 국회의원, 최창식 중구구청장, 김수한 중구의회위원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허철종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교수공 인쇄연구소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남원호 이사장은 “이번 축제는 ‘인쇄! 시대와의 교감’을 주제로 펼쳐지는데, 그 주제에 걸맞게 과거, 현재,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를 선보였다. 3일동안 마음껏 인쇄문화를 즐겨주시기 바란다. 또한 우수한 인쇄 작품을 출품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7000여개의 인쇄업체가 집적돼 있고 고용규모가 3만명에 이르는 등 인쇄산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다. 서울시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전시 및 체험부스 마련

축제장에는 역대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전시와 함께 인쇄산업 발전과정을 고대 근대 현대 미래 등으로 구분한 시대별 테마 전시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고대의 직지인쇄체험, 근대의 금박인쇄, 활판인쇄, PS판 인쇄체험 등 인쇄작업을 종류별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디지털인쇄, 3D 입체인쇄, 인쇄전자산업 등 미래인쇄 체험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인쇄전자산업 코너에는 제품 이력관리, 부품관리, 교통카드 등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RFID 인쇄기술을 비롯해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첨단 IT 전자산업에 적용되는 FPCB인쇄, 미래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전지에 활용되는 특수 인쇄기술 등이 전시됐다.

한편 축제와 관련된 모든 행사내용은 QR(Quick Response)코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했다.

서울인쇄대상에 드림애드커뮤니케이션즈 선정

제6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Art-Bum Paper Illustration’을 출품한 (주)드림애드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김평일)에게 돌아갔다.

▲금상은 분야별로 책자부문에 (주)동인에이피(대표 이영호, 백남준 아트센터 전시회 도록), 홍보부문에 (주)해인기획(대표이사 류명식,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생활부문 은성정밀인쇄(주)(대표이사 김국, 초콜릿 프레스티지 포장케이스) 등 3개 업체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은 (주)해동특수지(대표이사 박재욱, 한국영송), (주)현대아트컴(대표이사 김용희, 대한민국무형문화재작품 초청전 작품도록), (주)비전프린테크(대표 권영수, 다용도 쓰레기 봉투)가, ▲동상은 (주)디자인인트로(대표이사 임학래, 2010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주)삼성문화인쇄(대표이사 조영승, DongYang Annual Report),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 CITY STORY) 등 6개 업체가 각각 수상했다. ▲입선은 팬다컴프로세스(대표이사 천용관, dille) 등 25개 업체가, ▲특별분야 우수작은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미디어출판디자인과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제6회 인쇄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열렸으며, 수상작은 ‘동경국제도서전’과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등에도 전시된다.

인협·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홍보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서울



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장에 직지홍보관을 운영했다.

25㎡(5m×5m) 크기의 전시부스에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 ▲직지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